

질병 치료를 넘어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곳

산·학·연·병 융복합 공간 ‘옴니버스 파크’

150여 년의 역사,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자랑하며 국내 의료와 의료 교육을 선도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이 미래 의료를 오늘의 현실로 구현할 옴니버스 파크로 한 번 더 도약한다.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옴니버스 파크는 연면적 61,414㎡, 지상 8층, 지하 5층 규모로, 미래 의학 교육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의료 융·복합 공간이다. 세계 보건요리를 선도하는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Medical Complex)로 탄생할 예정인 옴니버스 파크는 교육·연구 시설뿐만 아니라 국내외 우수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공간도 배치돼 국내 최고 산·학·연·병 융복합의 플랫폼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지향적인 교육 공간



인포멀 복도



PBL실



TBL실

건강한 인재 양성과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자기 주도형 토론 중심 학습이 가능한 교육 공간으로 문제중심학습(PBL), 팀기반학습(TBL), 다양한 그룹학습과 비정형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플레이 그라운드(Play Ground)와 러닝 그라운드(Learning Ground)로 구성되는 슈퍼 스페이스(Super Space)는 자기 주도형 학습 환경을 구축, 창의적 학습과 교류, 휴식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PBL실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자기주도형, 토론 중심의 학습이 가능한 교육 공간으로 문제중심학습 가능

• TBL실

팀기반학습(TBL)은 물론 다양한 그룹학습 가능

• 인포멀 복도

비정형 학습 가능



산·학·연의 산실 연구 공간



저층부 시설



모듈별 실험실

저층부 시설은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춰 구분, 산학 실험 연구자를 위한 아이디어 교류 및 소통의 공간도 조성된다. 가변성을 고려해 실험실을 모듈별로 계획하고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연구 환경을 공동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우수 외국의 연구소처럼 동일한 환경 조건의 모듈 기반 설계로 입주 기업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를 통해 실내 개방감을 최대화해 보다 쾌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저층부 시설

산학 실험 연구자를 위한 아이디어 교류 및 소통의 공간 조성

• 모듈별 실험실

입주 기업의 효율적 공간 활용

• 실내 인테리어

실내 개방감을 최대화해 보다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



나누고 즐기는 교류 공간



편의 및 외부 공간



컨벤션센터



의료역사 박물관

편의 및 외부 공간은 사용자별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구성된다. 실별 기능에 따라 확장 및 유동성을 고려해 이동이 가능한 창과 문을 계획했다. 시설 간 교류와 행사 유지가 가능한 컨벤션센터는 각종 학술행사와 웨딩 등 다양한 행사에 대응할 수 있게 구성됐다. 한국 가톨릭 의료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료역사 박물관을 마련해 인간 존중의 가톨릭 정신을 계승해 나갈 방침이다.

• 편의 및 외부 공간

사용자별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구성

• 컨벤션센터

각종 학술행사와 웨딩 등 다양한 행사 대응

• 의료역사 박물관

가톨릭 의료의 역사를 한 눈에

옴니버스 파크(Omnibus Park)

‘옴니버스 정신’을 구현하는 융·복합 공간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혁신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 옴니버스 옴니아의 정신을 구현
- 소통·협력·융합이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
- 혁신의 즐거움이 있는 장소

※ 옴니버스 옴니아(Omnibus Omnia)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이라는 뜻



2022년 2월
완공 예정



61,414㎡
연면적



규모

지상 8층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산학

지하 5층

교육 / 지원 시설

옴니버스 파크 기공식 현장 이모저모

옴니버스 파크 기공식은 1부 공식행사와 2부 축복식으로 진행됐다. 가톨릭대는 이번 옴니버스 파크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의학 교육을 선도함은 물론, 학교와 기업, 연구소, 병원의 통합화를 도모하여 국내 보건요리를 선도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손희승 주교는 의료기관이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님을 강조하며 “‘옴니버스 파크’가 사람 중심의 치료를 연구하는 미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가톨릭 정신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를 지향하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